

8월의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안에, 내가 아버지안에 있는 것 같이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22절)



-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조용기 총재목사님께서 2013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충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DCEM 성회 안내
2013년 9월 25일(수), 26일(목) 호주(퍼스)에서
"2013 승리의 삶"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정환, 김태승, 나인규, 안희순, 이형춘, 오현주, 임철규, 정경자, 정낙숙, 조양자, 조종숙목사님(순복음정릉교회), 최인철, 한성희, 한태성, 함석숙, GRACE CECILLIA YAP A, MELANIE R, UK2NIGERIA LIMITED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마음속의 두려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려운 생각, 두려운 꿈, 두려운 믿음, 두려운 말을 하도록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미국 정신 신체 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가 “만성환자의 90%는 병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병이 없는데 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기침을 하거나 가슴앓이를 하고 위산 과다 현상을 보이고, 늘 온 몸이 쭈시고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실제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고난과 의심을 주는 마귀를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귀를 꾸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태연하게 꾸짖으며 지나가면 물지 않지만 개를 보고 겁을 집어 먹고 돌맹이를 들고 던지든지 작대기를 들고 흔들면 오히려 개가 앞잡아 보고서 물고 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믿음과 동시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담담하게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761-6142 / dcem@davidcho.com

조용기 목사 초청 유럽컨퍼런스 개최

조용기 목사 유럽컨퍼런스서 새 꿈과 비전 선포
60개국 목회자와 성도, 메시지에 폭발적인 반응 보여



스웨덴 고도(古都) 읍살라에 성령대축제가 열렸다. 조용기 목사 초청 유럽컨퍼런스가 지난 7월24-25일 오후 8시(현지시간) 읍살라 '생명의 말씀(Livets Ord)' 교회에서 개최됐다. DCEM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만 20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해 스웨덴뿐 아니라 유럽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14년 만에 스웨덴을 찾은 조용기 목사는 4차원 영성을 역설했다. 꿈과 비전을 강조한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막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셨다. 육신의 장막에서 나와 하늘을 쳐다보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안에서 새 꿈과 비전을 바라보자”고 선포했다. 통역은 생명의 말씀 교회 요아킴 룬드크비스트 담임목사가 맡았다.
60개국에서 모인 목회자 및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회 내내 뜨거운 박수와 환호, 웃음과 감격 그리고 '아멘'이 계속 이어졌다.

말씀에 앞서 CGI(국제교회성장연구원) 이사이며 생명의 말씀 교회 설립자인 울프 에크만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은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를 80만 성도가 출석하는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키고 지구를 150바퀴나 돌며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해온 분”이라며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소개했다.
조용기 목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토대로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이틀 동안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며 “새 신분을 가지게 됐다”고 선포했다. 이어 “분명한 목표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본인의 신분을 알지 못해 복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병고침 받고 축복받은 신분이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기적을 이뤄주신다”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병고침을 위한 신유기도가 이어졌다. 아픈 곳

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유럽인들에게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조용기 목사가 나온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조용기 목사가 퇴장하자 박수소리는 점점 더 크게 한참 동안 계속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순복음유럽총회 총회장 김용복 목사 외 순복음선교사들이 참석해 스승을 응원했다. 주최측은 조용기 목사의 성령사역 55년 영상을 방영했고, 스웨덴어로 번역된 조용기 목사의 저서들도 판매했다.
헝가리에서 온 웨이글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은 나의 멘토이다. 그의 책을 통해 성령 체험을 했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고 말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접경에서 왔다는 소피아 성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참석했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꿈과 비전이 생겼다”고 전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중략)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21절>

반개 하려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2. 죄를 회개하고 멀리한다

거듭남으로 얻은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된 양심을 통해 마음을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 평안이 없습니다. 시편 38편 3절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기록하며, 이사야 57장 21절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없애려고 짓누르니까 고통스럽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의 한 부분에 압박을 가해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곳이 썩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귀의 생명인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억압을 당하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으며 응답을 얻지도 못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담을 털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3. 의를 사랑한다

거듭난 사람은 죄와 허물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좋아하십니다. 의롭다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그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의'는 예수님을 믿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더라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철저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중에도 가장 강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바리새인이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1.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을 특정 짓는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받을 것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외로운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감으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예수의 천당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이나 철학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4.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

거듭난 사람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합니다. 바로 남편은 아내가 이웃이고 아내는 남편이 이웃이고 부모는 자식이 이웃이고 자식은 부모가 이웃이며 가까이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이웃인 것입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거듭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 친척, 형제자매, 친구와 동료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과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 중에 지금이 적은 자에게 베풀고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접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믿고 산다

천국까지 예비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 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 놓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며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주되심을 굳게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죄를 대적하여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13 제27회 전국 청장년 금식대성회

'새로운 세대여, 새로운 꿈을 품어라' 주제로 열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나라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2013 제27회 금식대성회가 8월 5~8일까지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됐다. 1974년부터 시작되어 역사성을 인정받은 청장년금식성회는 '새로운 세대여, 새로운 꿈을 품어라'는 주제로 청장년들의 영성강화

와 뜨거운 성령체험의 장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무색케할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차게 기도했다. 성회 둘째날인 6일 실무대회장 김명현 목사(이천순복음교회)의 강사소개 후 강단에 선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모세는 300만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앞으로 왔다. 애굽 군대가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하자고 외쳤다. 하지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80세가 넘는 모세 혼자였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4차원의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4차원의 사람이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안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고,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짝 갈라지듯, 우리도 4차원의 세계를 내밀면 3차원의 세계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며 "4차원 영성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기적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참석자들은 오종복음과 삼중축복, 사차원의 영성으로 성령충만한 신앙인이 될 것을 소망했다. 또한 성회에서 도전 받은 많은 성도들은 교회는 물론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세울 것을 다짐했다.

한국교회 성령 충만대성회 및 8.15광복절 기도대성회

"주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소서" 조용기 목사 4차원 영성 강조하며 '하나님의 축복' 전해



2013 한국교회 성령충만대성회와 8.15광복절 기도대성회를 드림으로써 의미가 깊어졌다. 전국에서 초교파적으로 50개 이상의 교회가 참여해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성회 강사로 초청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8.15 광복절 기도대성회로 진행된 15일 말씀을 전했다. 기선협 총재 고충진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68주년을 맞은 광

복절에 한국교회 성령충만대성회와 8.15광복절 기도대성회를 드리게 됐다. 의미 있는 날에 세계적인 목회자이신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전하며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것을 당부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며 예수님이 안드레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듯 안드레처럼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인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 병, 가난, 저주를 청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며 "하나님이 이뤄주신 모습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과 꿈, 믿음과 말을 가지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당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품었던 때를

회상하며 "꿈이 50년 목회를 이끌었다. 결국 꿈이 이뤄져 한국과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꿈을 가져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처럼 꿈을 갖고 믿음을 심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전했다.

조용기 목사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대성전 곳곳에서 박수와 아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설교 후에는 기선협 대표회장 장질수 목사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대한민국, 세계선교를 위해 특별기도했다. 광복절을 맞아 드린 이날 예배에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애국가를 제창했다.